

107년 된 일본교회

- 김사무엘 선교사 / 2001. 12. 21 -

지난 주 저는 개척된 지 107년 된 한 일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4,5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밝게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20여명이 채 안되는 어른들이 모여서 진지하고 또 정중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점심을 같이 하며 손님으로 간 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회 이야기, 자신들의 교회가 설립된 경위 등,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 가운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너 분이 계시고 젊은 청년은 없었기에 평균연령이 아마도 50은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많아 긴장과 설렘과 분주함 등이 전혀 없는 매우 차분하고 진지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매우 잘 아는 그런 분위기로써 마치 어느 구역 예배나 순 예배의 은혜로운 모임에 참석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교회는 딱딱하고 은혜가 없으며 매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의 교제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개 교회들이 100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개척된 지 17년째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2만 명이 넘었으며 아마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교회 중에 하나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 후인 2100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었을 것이고 나라도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지 2천년동안 결코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시이다" 라고 고백한 마태복음 16장16절의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 '당신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교제하며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 그리 세상으로 보내져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세상에 구원의 좋은 소식을 펼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7년 된 이 교회는 한 선교사가 이 외진 시골에 복음을 전하여 주므로 죄악과 술과 놀이로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 이분이 20km나 떨어진 교회로 매주 걸어서 출석하다가 자신의 집을 내어 놓아 교회가 개척된 다음, 그의 손자 되시는 분이 장로님으로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삼대 째 이어진 신앙은 흔히 우리가 보는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고 진실과 내용이 있는 온유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로 이 위대한 구원을 값없이 거저 얻은 우리 모두가 섬기고 있는 지금의 교회가 10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지상에 남아 있을까요?

100년 후를 영두에 두고 오늘의 우리 교회 모습을 다져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